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자연재난 비상대처 훈련

주남현 기자 | 승인 2025.04.30 16:06

광산구 지정저수지 제방 붕괴 가정..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중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저수지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한 비상대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30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광주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지정저수지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광주지사 전직원, 시·구청, 평동파출소, 광산소방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 집중호우로 저수지 제방이 일부 유실 및 붕괴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지역주민 대피, 제당 응급복구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김철상 지사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제 대응능력을 키우고,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